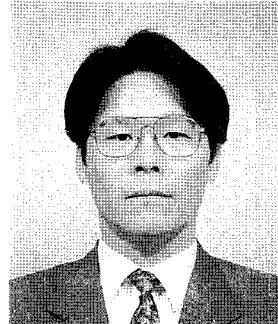


# 농산물 물류표준화 현황과 개선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물류개선부장  
박 감 춘



## 1. 머리말

표준화는 인류문명의 시작과 함께 언어·신호·수량·농경지의 측정 등 집단생활에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자연 발생하였다.

의식적 표준화 활동은 산업혁명이후 대량 생산, 대량소비의 합리화 수단으로 태동되어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49년 1월 「농산물검사법」을 제정·공포하여 농산물의 중량, 등급, 포장 등에 대한 규격화를 차수한 것이 근대적 표준화사업의 기점이라 볼 수 있다. 그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광공업, 제조업 등 비농업 부문은 생산,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농업부문은 자급적 생산구조,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업생산의 자연의존성, 유통 및 거래관행 등 타산업에 비해 제약요인이 많아 규격화, 표준화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식품 소비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특히 최근 대형 소매기구에서는 대량의 균질상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등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92년부터 청과물 종합처리장, 농산물 포장센터, 미곡처리장,

간이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지금까지 인력에만 의존해오던 선별, 포장 작업을 기계화·자동화하여 균질성 높은 규격농산물을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파렛트, 지게차등 물류장비지원으로 도매시장 하역을 기계화하는 등 농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물류자동화 및 신용거래를 실현할 계획이다.

## 2. 물류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

### 가. 산지출하

농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에서 출하상태는 농산물 유통효율을 좌우한다. 농산물 출하실태를 살펴보면 가격이 높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정선, 포장하여 출하되고 있으나 가격이 낮은 무, 배추 등은 수확직후 상태 그대로 시장에 출하된다.

이러한 산물출하, 비규격출하는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재선별, 재포장이 불가피하여 쓰레기 처리문제를 야기하고, 재선별 포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현물확인에 따른 거래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운송 및 상하역작업의 기계화 곤란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비규격 농산물의 출하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농민이 비규격 출하시 얻는 편익보다 훨씬 크다.

산지출하단계의 문제점은 첫째, 표준출하 규격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으나 표준출하 규격에 대한 보급 및 교육홍보부족으로 작목반, 농협등에서 구입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규격출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둘째, 현행표준출하규격중 최근 개정한 41개 품목은 표준형 파렛트( $1,100 \times 1,100\text{mm}$ )에 적재효율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으나 74개 품목은 표준형 파렛트에 적재시 적재효율이 낮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nit Load Systm)구축시 물류효율이 낮고, 셋째,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는 긍정적(83%)이나 농촌일손 부족(47%), 비규격품과 차별화 미흡(23%), 시설장비 부족(12%) 등 산지출하 여건이 미흡하여 규격출하가 부진하며, 넷째, 농가들의 공동출하 참여비율은 71%로서 높으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가 정착되지 않아 공동 수송하는 형태에 불과하여 공동출하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나. 물류시설 및 장비

유통시설 및 장비의 문제점은 첫째, 물류표준화 개념 없이 유통시설설치·운영되고 있어 물류시설 및 장비간 정합성이 낮아 유통효율증대에 한계가 있고, 둘째, 표준파렛트 보급(포장센터 63%, 저온창고 26%) 및 이용률이 낮고 주로 내부운송 및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송효율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농산물 수송은 5톤 트럭이 주종이나 적재함개조, 광폭적재 함보급이 부진하여 표준파렛트 2열 적재가 불가능하고, 넷째, 농산물 유통의 중추시설인 도매시장은 물류장비 부족으로 인력의 존도가 높으며, 다섯째, 산지에 예냉장비 보급이 미흡하고, 냉장차량의 이용이 저조하여 채소류의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다.

#### 다. 물류정보

물류정보부문의 문제점은 첫째, 정보표준화의 기본이 되는 data항목, 상품 Code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상호정보교환이 곤란한 실정이며, 둘째, PC의 보급률(도매법인 99%, 포장센터 78%, 중도매인 15%)은 비교적 높으나, 관련 Program개발·보급 미흡으로 물류정보처리보다 회계처리 등 사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셋째, 농가의 유통정보입수, 중도매인의 거래처 주문은 전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넷째, 도매시장의 경매과정이 명료하지 못해 출하자 및 구매자들이 거래상황을 쉽게 알 수 없고 경매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많으며, 다섯째, 업무서식, 양식, 전표 등의 업체에 따라 다양하고, 도매시장법인 별로도 장표의 규격 및 내용이 상이하여 출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3.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방안

농산물 물류표준화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포장, 보관, 운송, 하역, 시설 및 장비 등의 규격화, 표준화를 통해 농산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류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생산농민이 표준출하규격에 맞게 엄정하게 선별, 포장하여 출하하더라고 수송효율이 낮아 상품성이 손상되거나 유통시설, 장비간 정합성이 낮아 인력에 의존하여 상하차한다면 물류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유통효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의 전 과정을 ULS 기준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격농산물 출하체계 확립, 물류시설장비 보급확대, 물류정보 표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규격농산물 출하체계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규격출하 거점

시설을 육성하고 산지출하조직의 운영활성화 지원 및 규모화 유도로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산물출하, 비규격출하가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규격품에 대한 우대조치가 미미하여 투입된 비용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① 규격 출하품에 대한 포장재 보조금 지원확대, ② 경매 우대조치(상장수수료, 경매장소, 시간대 등), ③ 산물출하품에 대한 쓰레기유발부담금 및 청소비 이상, ④ 패렛트 적재출하, 규격 출하, 산물출하로 구분하여 하역비 차등 부과, ⑤ 도매시장내 재포장 및 다듬기 금지 등으로 비규격출하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표준출하규격을 표준패렛트에 정합성이 높게 정비, 보완하고, 소비자 포장개발 보급으로 농산물 품위확인 등 거래시간을 최소화하고, 유통과정에서 재선별·재포장 하는 일없이 산지출하시 포장상태를 유지한 채 소비자까지 전달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출하·공동계산체제 정착방안을 강구하고 표준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간에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통시설은 물류개념을 도입하여 건설하고 기존시설은 물류시설 기준에 맞도록 개보수를 추진하며 정부지원 사업은 ULS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여 농산물 물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표준패렛트, 지게차 등 물류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대량물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기계화, 자동차 체계가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조직,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에 패렛트, 전동차, 지게차 등 하역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패렛트 회수 및 관리를 위해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패렛트 풀시스템(Pallet Pool System)을 구축하거나

나 또는 기존 한국파렛트풀(주)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에 맞는 차량보급 및 적재함개조, 예냉장비, 냉장차등의 보급을 통한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 구축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물류정보의 표준화는 우선 상품 Code, Data항목등 정보기초 요소 표준화를 통해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포장외부표시사항이 4-5개 항목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하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7-11개 항목으로 불필요한 사항이 많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 등 각 유통시설에서 사용하는 전표, 장표 등 업무서식 또한 통일화된 양식을 보급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 및 출하자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 전자식 경매제도 도입은 도매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대량물량의 신속한 처리로 유통비용이 절감되며, 정확하고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유도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앞으로 농산물 규격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자식 경매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견본경매는 농산물 규격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 시범 실시후 그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장기목표는 신용거래를 실현시키는데 있다. 앞으로 농산물 물류체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물류시설간 정보공유체제가 확립되면 물류종합정보망을 통해 농산물의 전자거래가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수산 관련 정보망과 물류종합정보망을 연계하여 물류흐름을 조정할 수 있어 농산물 물류효율을 한층 더 높일수 있을 것이다.